

24-1 파란학기 성과발표회

너당나당

선거과정의 이해 및 발의안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는 소통형 뉴스레터 제작

00. 목차

01

01 팀 목표, 활동 계획

- 정치적 무관심 해소
- 제22대 국회의원 선거

02 뉴스레터 제작

- 발의안 소개
- 사회적 문제와 연계

03 오디오 뉴스레터

- 다양한 접근 기회

04 발의안 작성해보기

- 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
- 발의 과정 간접 체험

05 정당정치연구회회

- 발의안에 대한 토론
- 다양한 의견 취합

06 소감

- 대한민국의 정치 양상?

정치적 무관심,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?

01

연일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갈등

발의안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... 그 발의안의 본질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?

02

상반된 여론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 마련

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,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!

03

오디오 뉴스레터, SNS 게시물 등의 형태로 뉴스를 제공

다양한 경로로 정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!

01 뉴스레터 제작과정 소개

너당나당

📧 세번째 📧 뉴스레터

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아요!



01 이슈 선정 및 조사

- 먼저, 뉴스레터의 핵심 콘텐츠인 '사회적 이슈와 발의안'을 선정하기 위해 최신 정치, 사회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발의안들을 선별했습니다.
- 각 발의안의 배경, 목적,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분석했습니다.
- 이 과정에서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.

02 디자인과 독자맞춤형 콘텐츠

-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'스티비'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였습니다.
- 뉴스레터는 발의안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과 도표를 활용했습니다.
- 또한,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참여형 콘텐츠 (예: 설문조사, 독자 의견 섹션)를 포함하여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뉴스레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02. 뉴스레터 제작

A 매주 뉴스레터 발행		오픈율	클릭율	☆	▼
발송완료	[너당나당] 양국미 개정 발의안에 대해 중무해모아요! 미리보기	53.3%	0%	☆	▼
발송일	2024.5.8. 오후 2:00 주소록 너당나당	66.7%	0%	☆	▼
발송완료	[너당나당] 제21대 국회의 5월 발의안에 대해 알아보아요! 미리보기	56.7%	3.3%	☆	▼
발송일	2024.5.1. 오후 2:00 주소록 너당나당	50.0%	0%	☆	▼
발송완료	[너당나당] 총선 결과를 살펴봐요! 미리보기	53.3%	3.3%	☆	▼
발송일	2024.4.17. 오후 2:00 주소록 너당나당	59.3%	18.5%	☆	▼
발송완료	[너당나당] 미국과 일본의 선거에 대해 알아보아요! 미리보기				
발송일	2024.4.10. 오후 2:00 주소록 너당나당				
발송완료	[너당나당]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알아보아요! 미리보기				
발송일	2024.4.3. 오후 2:00 주소록 너당나당				

꾸준한 관심 독려

01
지난 10주 동안 매주 발행된 뉴스레터를 통해, 너당나당은 독자들에게 최신 정치, 사회적 이슈와 중요한 발의안들을 소개했습니다. 각 호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, 독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이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,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했습니다.



다양한 정치적 이슈 소개

지난 10주 동안 매주 발행된 뉴스레터를 통해, 우리는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이슈를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. 각 호에서는 최신 발의안, 정부 정책,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, 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.

눈으로 읽지 않는다면, 들으면서 접할 수 있게 해보자!

01 오디오 뉴스?

이미 다양한 오디오 경로들이 존재하지만,
정치적 무관심층에게는 너무 길고 어렵지 않을까?



더 쉽게, 짧게, 적은 정보라도 접할 수 있게 한다면?

- 뉴스레터로 작성한 내용을 요약하여 약 3분 분량
- 정치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!

02 '팟빵' 플랫폼 이용



[너당나당] 중소기업 관련 발의안에 대해 알아보아요!

UP 24.05.24 · 4분 · 좋아요 1

03 결과

발행 횟수: 9회

구독자 수: ???

느낀 점: 좀 더 대중적인 플랫폼이 필요할 듯...

대한민국의 오디오 매체 이용률이 높지
않음을 고려했어야?

주제 선정

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?

증여와 유증의 경우 부담부에 관한 조문이 존재하지만,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있어서는 부담부에 관한 조문이 부재하다. 협의조건 이행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상속인 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관련 분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조문이 없어 부담부증여(민법 제559조, 제561조)로 판단하고 있으며, 이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.

따라서 부담부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행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.

발의안 작성

1. 기존 법령에 대한 문제점 알아보기
2. 개정이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 + 겹치는 법령 확인하기
3. 제안 이유 & 작성례 구성하기
4. 수정 및 검토하기
- (5. 국회의원에게 제안해보기, 인터넷에 공유해보기)

04. 발의안 작성해보기

【특정안 제안이유, 주요내용】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연월일 : (2024.01.28)

제한이유

중국의 유물과 중수 부원부의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, 중수부원부
간 상속재산법의 관련이 있어서 부원부의 관한 조항이 부재하다. 영
의조전 이행의제에서의 관행으로 상속인 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.
관행 조항과 대법원판결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부원부중수(인명
제559조, 제561조)로 판정하고 있으며, 이의 상속재산법의 관련의 성
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. 따라서 부원부 상속재산법의 관련
이행에 관한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중함으로 검토할
필요가 있다고 한다.

주요내용

기. 부속임금 산출계산방법원칙 규정 (제1013조의2, 제1013조의3 신설)

[illegible]

[토론만 작성해]

범주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3조의2, 제10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13조 제2(부담있는 상속재산범의 분할과 상속인의 책임)

① 부민들은 한류계급의 지배를 받던 한류의 부패의 기원을 논외의의 미나 한 한류의 부패의 부패를 부민들의 이름에 이항한 책임이 있다.

② 부동산의 실속자산점의원칙의 정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특정하여 기정불인하여야 한다.

1. 문장의 대상
2. 문장의 형식
3. 부속의 유무

⑤ 부속 2항 정속개산절차의무원은 전보 송의 없이 진행하지 못한다.

제103조의3(부담있는 상속재산범의분할의 취소)

부담있는 짐을 받을 때가 그 부담의무는 이해의치 이니한 내에는 볼
중심적인 실감한 기간을 정의하 이해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
이해의치 이니한 내에는 남한에 짐을지산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제10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3조(범의에 의한 분할)의)

①원칙의 정수적응을 통해실용인론은 전체론적 나정칙을 의의로 삼고, 실용적응을 통해실용적응을 한다.

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.

제103조의2 (부당잉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상속인의 책임)

① 부인전남 실속개산회의부원장인 실속의 부장의 기록을 본회의의 이니
한 발표자로도 의무를 부인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.

③ 부인인 양 성숙개산점의 부인점의 점의 시상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
하여 서언으로 특정하여 기재할인하여야 한다.

1. 본질의 대상
2. 본질의 방법

제1013조의2 (부담있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상속인의 책임)

① 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.

② 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특정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분할의 대상
2. 분할의 방법
3. 부담의무

③ 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
전원 동의 없이 진행하지 못한다.

제1013조의3(부담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)

부담있는 상속을 받은 자가 그 부담
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
동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
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
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상
속재산분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
다.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
못한다..

** 정당정치 연구회		
과정	세부 내용	비고
주제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매 활동마다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.- 매주 주말, 정당정치 연구회에 공지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.-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, 이에대한 생각을 나누며 작은 토론의 장을 거쳤습니다.	뉴스레터 10호 발행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.
분석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정당정치 연구회를 통해 접한 이슈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.- 정리된 내용을 뉴스레터 형식에 맞게 정제합니다.- 필요한 데이터 자료를 검색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시각자료로 제작합니다.	작은 의견조차 흘리지 않고, 깔끔하게 정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뉴스레터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스티비'플랫폼을 통해 뉴스레터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합니다.- 정당정치 연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하여 독자들이 다각도의 시각에서 해당 주제를 살필 수 있게 하였습니다.-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 분석 및 조사를 통해 뉴스레터에서 보완하였습니다.	정당정치 연구회의 자료가 뉴스레터 내용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

이번 파란학기 프로젝트의 결론

- 01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정치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- 쉬운 용어 사용의 필요성?
- 02 폐기되는 법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-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, 대중의 관심의 필요성?
- 03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치에 대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. - 발의안을 통해 바라본 우리 정치와 사회

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

지난 뉴스레터 10호 발행기간동안 논쟁이 되는 발의안을 다루며 정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들에게 최신 정치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,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.